



폐기물 재활용, 우리모두의 과제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비가시적 문제점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을 지니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보편화된 심리구조는 그것이 가시화 되었을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한 템포 늦은 행동으로 나타나게되며 어찌면 이러한 개인들의 심리구조는 한 국가나 인류 모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되는 사례를 종종 드러내어 우리 모두를 반성 하게 하고 있다.

「준비가 있으면 화가 없다」는 유비무환의 교훈은 많은 예를 들수 있겠지만 그중 우리에게 제기되는 환경 오염의 문제는 이제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여 뒤늦게 해결 하려는 안타까움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임기응변적이고 미봉책 이었던 문제 해결의 자세에도 큰 원인이 있었겠지만 비록판에서 한수 앞을 보는자와 못보는자의 차이로 설명 할 수 있을것이다. 일례를 들어 비가오면 항시 무너지던 뚝이 또 무너지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눈앞에 펼쳐질 문제점들에 철저한 준비와 대

조 익창 / 한국자원재생공사 총무과장

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을 편히 쉬기 위하여 내일에 대해 무책임 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성과 안타가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환경문제」 이는 어찌느기면 아주 소홀히 하기 쉬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과 개발의 측면에만 눈을 돌린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어쩌면 절대결명의 과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발전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환경오염에 대한 것으로 이에 수반한 쓰레기의 처리문제와 각종 폐기물에 대한 대책과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버리는 각종 쓰레기(폐기물)들이 분리수거 작업을 통하여 재활용 되어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하다.

유럽의 경우 버려지는 폐기물은 분리수거되어 99% 가까이 재활용되어 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교훈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요일마다 내버리는 쓰레기의 종류를 정하여 그날은 그종류만 수거하는 방식과 거리에도 쓰레기 통 마다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어 국민의 협조하에 분리수거를 자연적으로 가능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갈되어가는 자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 갖는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들이 그저 단순하게 소각 처리 되거나 난지도에 쌓여 매립 또는 버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대량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폐자원이 재활용되어 바람직한 순환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선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변화에서 오는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고갈되어가는 자원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여 폭 넓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일 신문을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글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강과 각 하천들의 오염, 공장에서 쏟아지는 각종 폐수와 폐기물 맹독성의 중금속 중독사건 공해병…….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이전

에 국민들의 자각과 업주들의 반성 이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직원들은 전국에 8개지사 및 60개소의 관리소 그리고 폐비닐을 재생처리하는 청원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안동에 제2공장 기공식을 10월말에 갖게되며 또 서울특별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라 각 여성단체에서 수선수법 하여 분리하여 모아둔 재활용품을 공사에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공사 직원 모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을 자원화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었으면 한다. *

